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호 증암탑명리칠층석탑



증암탑을 노래함

신경림

강과 산과 들의 푸른 기운을 한 몸에 모아
땅속 저 깊은 곳의 뜨거운 숨결까지 끌어 모아
저 높은 곳 하늘로 솟아 올리고

해와 달과 별의 노래들을 품으로 받아
넓은 하늘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꿈들을 손으로 따서

이 땅 위에 흠뻑리기 위하여
이 땅속에 깊이깊이 심기 위하여

반도 한복판을 가르며 흐르는 물길을 굽어보며
기름진 들판을 어루만지며
산과 동무해 나 여기 서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바람을 한데 모아
산짐승 들짐승의 웃음과 울음을 한데 모아
나무와 풀 비취며 돌과 흙의 숨결까지 한데 모아

비와 눈과 바람의 기운까지 끌어 모아
천둥과 번개의 힘까지 끌어 모아

높고 넓은 하늘에 꿈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땅에 널리 퍼져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열싸안고 뛰노는 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신경림시인은...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1955년 <문학예술>로
등단. 시집 <농무> <남한강> 등.

교육·포교 화두는 '사이버'

조계종 교육원 2012년 사업계획

조계종 교육원이 기본교육기관 수업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 강좌를 도입한다. 또, 한글염불의례 정착을 위해 승가고시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1월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교육원 주요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정착은 지난해 1·2학년 표준교과가 시행된데 이어 학인 스님들의 진학에 따라 3학년 표준교과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은 필수(32개 교과목), 선택(7개 교과목)과 불교의식·수행실수·대중습의 등 일상수행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필수교과목 가운데 전문 교육 교역자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동영상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상반기 중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하반기 중 세계종교의 이해, 종관사상, 불교와 동서철학 등 6개 교과목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한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사이버 동영상 강의가 구현되면 전문교육교역자 수급을 겪고 있는 교과목의 안정적인 강의를 통

교육원 주요 역점사업

-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정착
한글염불의례 교육 시행
사이버동영상 강의 시행
승가교육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승가고시 개선 연구
국제활동·역경 등 전문인력 양성
연수교육 정착 및 인문사회분야 강화 운영
(가칭)출가예비학교 운영(9박10일)
승가교육매거진 발행 등이다.

수업 표준화 위해 사이버강좌 도입
승가고시, 한글염불의례 포함 추진

해 기본교육기관 개편 교과목의 정착을 도모하고 교육의 균등한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행사·학인 교육에 필요한 염불지도교수진을 구성하는 등 행사 수계교육 및 기본교육과정에 한글 중심의 염불의례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특히, 한글염불의례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4·5급 승가고시에 한글 염불의례를 반영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2012년 포교비전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등록 강화를 통해 신도포계 품수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신도 10만명과 신도지도자인 선례품수자를 1000명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2년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주요사업방향과 제6대 포교원 비전을 발표했다.
제6대 포교원은 시대와 사회변화를 관

SNS 활용 불자 모아 조직화
전법중심도량 300개소 지정

통하는 불교트렌드 구축과 확대, 수도권 및 도심권에서의 생동감 있는 불교위상 회복, 종단 구성원의 확장·조직화를 통한 불교중흥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포교원은 불교트렌드 형성을 위해 법회 및 각종행사의 SNS 연계기반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SNS 활용 불자들을 모아 조직화하고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특히, 사이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연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화·특화
조동섭 기자

제6대 포교원 정책 목표

- 새로운 불교 트렌드 형성
새로운 포교의 장 확대
종단 구성원 확대와 조직화
2012년 4대 특화사업
취약지역 문화센터 설치 운영
발심포계 법회 정례 추진
불교스카우트 조직 운영
교구 산악인회 결성

시킨 불교 생명자유 프로그램 개발과, 법회 및 생활의례 일상화, 문화 및 사회포교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포교의 장을 확대기 위해 포교원은 전법중심도량 300개소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법단 역할을 강화하는 등 포교 역할을 제고와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인재발사에 기반한 포교 강화를 위해서는 신도포계 품수제를 통한 정예신도 양성과 불교영아지도자 과정 개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포교원은 사찰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법회 및 각종행사의 SNS 연계기반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SNS 활용 불자들을 모아 조직화하고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특히, 사이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연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화·특화
조동섭 기자

동방대학원대학
선암사건 연내 해결

태고종, 연두기자회견서 밝혀

태고종이 조계종과 협의 중인 선암사와 前 총무원장 윤산 스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대학원대학 건을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승려노후 전용시설인 기로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월 1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종단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모두발언에서 "총무원장 임기 3년차인 지금도 윤산 前 총무원장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내 부덕의 소치이다. 종도들의 지혜를 모아 올해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종단 발전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승가교육에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원, 불교대학 등을 정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총지종 충북 괴산에
80만평 농장 조성

불교 총지종(통리원장 지성)이 올해 내부적으로는 승직자 자질 향상, 대외적으로는 포교 활성화에 주력 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 괴산에 유기농 작물 재배와 수련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 복지종단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한다.
지성 통리원장은 1월 17일 여삼동 총지종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주요 계획을 설명했다. 80만평 규모로 조성될 괴산 종합복지타운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성 통리원장은 "종단이 복지재단을 일찍 설립했음에도 활동이 미약했다. 앞으로 건립될 종합복지타운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종단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성 통리원장은 "총지종 승직자들과 자제공덕회를 방문해 포교 방식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지관 스님 원력 회향 돕겠다" 김용환 신임 문광부 제2차관이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가산불교대사림> 안간 지원을 약속했다. 김용환 차관은 "지관 스님이 노력하신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건을 위해 문광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종단은 정부 예산지원에 큰 관심은 없다. 정부가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화해상생 자주화합' 서원

진각종 새해대서원불공 행했다.
이번 새해대서원불공은 '화해상생과 자주화합'을 서원의 으뜸 덕목으로 총인 예하의 교시에 따라 >화해상생으로 인류 공영공존 >자주화합 정치와 경제발전 등을 서원했다.
조동섭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창립 선언문

귀 의 삼보 하옵고

불교 각 종단 정경(宗正)예하(猊下) 총무원장(總務院長)님 고승(高僧) 대덕(大德) 큰 스님 들과 2천만(千萬) 불자(佛子) 사부(師父)대중(大衆)께 아뢰옵니다.

삼계(三界)의 대도사(大導師)이시며 사생(四生)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어언 3천여 년 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佛敎)의 역사(歷史)를 돌이켜보면 왕정(王政) 치하(治下)에서는 귀족(貴族) 불교(佛敎)화 되었고 역사적(歷史的) 법란 속에서는 산중(山中)불교(佛敎)로 대중화(大衆化) 하지 못했으며, 수많은 외침과 위정자(爲政者)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가슴 아픈 역사(歷史) 속에서 면면히 그 법맥(法脈)을 유지해왔으나 작금의 현실(現實)은 무분별(無分別)한 외래(外來)종교(宗敎)문화(文化)에 밀려 마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으니 심히 통탄(痛嘆)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 각 종단(宗團)은 자신들의 종지(宗旨)만을 고집하고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군소(群小)종단(宗團)의 난립(亂立)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 이에 본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불교(韓國佛敎) 종단(宗團) 총연합(總聯合) 진흥회(振興會)에서는 수많은 종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합(化合) 단결(團結)하여 불타(佛陀)의 혜명을 계승(繼承)하고 전법(傳法)도생(度生)의 사명(司命)을 다하고자 법등(法燈)을 밝히노라.

본 사단법인(法人) 진흥회(振興會)는 한국불교의 종조이신 태고 보우국사의 원웅(圓融) 무애사상(無碍思想)과 그 정신을 받들어 걸림 없는 대통합(大通合)의 화합을 통해 한국불교 교단(敎團)이 일치(一致) 단결(團結)하여 21세기 이 시대(時代)가 요구(要求)하는 새로운 불교 개혁 운동(改革運動)으로 세계일화의 꽃을 피워 적극적(積極的)인 사회(社會)참여(參與)와 생활(生活)불교(佛敎)를 실천하는 신행(新行)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社會) 나아가 세계일류(世界一流)평화(平和)에 기여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고자 그 첫걸음의 행보(行步)를 민천(民天)에 공표(公布)하는 바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실 각 종단(宗團) 신행(新行) 단체(團體) 및 사부대중 불자님들의 동참(同參)을 두 손 모아 앙망(仰望)하는 바입니다.

佛紀 2556年 (2012) 1月 16日

韓國 韓國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 영산 일공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회원일동

임원 명단

- 총 재 영산 일공 대화상
일로위원 (법평) (동산)
회 장 석연화
부 원 장 윤산 원덕 성관 월암
자문위원 지암 은국 도선 지오
사무총장 승덕 운영위원장 호진
기획실장 법장 사서실장 송현
지도위원장 법봉 호법위원장 보성
문화위원장 지오 학술위원장 청운
감찰위원장 종섭 서화위원장 청곡
조직국장 해월 홍보국장 해천
사업국장 법성 새싹핵심팀 무영
법사위원장 장영희 부 원 장 황병권
부 원 장 최광자

회원종단 (당연직 운영이사)

- 한국불교원운원(중) 성관
세계불교법륜종 법평
대선불교조계종 동산
호국불교선미륵종 호진
대한호국불교극락종 은국
해동호국불교조계종 운산
중국광동총조사한국유조선원 연화
대한호국불교법운종 월암
세계선불교조동종 송현
한국불교구산선문회 법정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원덕
대한호국불교대각종 종섭
대한호국불교연화조계종 해월
한국불교선계선원 정은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연화
대한불교법계종 청산
대한호국불교조계종 해일

회원단체

- 세계선불교 육조선 교류연맹
세계 불교지도자 연맹
해능 국제 불교 대학
해능사상 연구회
한국 선 불교 학회
사단법인 세계 예술 교류 연구회
한국 도교 협회
민족 도교 협회
바라밀 예술단 (지우)
사단법인 한국 민속 예술 연구원
한국 풍수 지리 학회

入 會 案 內

- 회원의 자격 : 각 종 단체 및 신행단체, 승려 및 일반불자, 불교 문화예술 전문분야종사자
문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33길 15
전화 : 02)857-2250, 011-285-6800, 010-4813-6800 FAX 02)853-0533
E-MAIL : duksan0129@yahoo.co.kr